

선생님은 우리들의 연구적 촉매입니다

장 영 진(벡터 유추물리 연구소)

장영진 선생은 진공의 상전이장이론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기기를 개발하시는 발명가입니다. 직접 취산 선생을 만나지는 못했으나 연배가 비슷하시고 서로간의 이해 또한 깊어 단번에 지기가 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뵙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선생님의 격려와 사랑의 음성이 그리워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지금여기>에서 취산선생을 만났다.

취산 선생님과과의 첫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따르릉. 따르릉.

“미국 플로리다주입니까? 취산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 장영진입니다.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언제쯤 서울 오십니까 …… 그렇습니까. 저는 평양 출신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선생도 선배도 후배도 없습니다.”

“없는 것뿐이군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태풍을 멈출 수 있다면 태풍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 연구를 합니다.”

이때 선생은 음성이 바뀌면서 좀더 듣고 싶다 했다. 허무 맹랑한 미친 소리 같은 것을 침착하게 정성들여 듣고자 했다. 내가 실험한 내용과 연구 과정을 한달음에 이야기했다.

“선생님 30분이 지났습니다. 전화요금 때문에 끊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통화를 끝냈다.(통화료는 선생님의 몫이었다.) 당시 미내사 김선경씨의 도움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감격하고 고마웠다.

두 번째 만남.

“선생님 언제 서울에 오십니까? 예, 그럼 저와 이야기할 박사를 추천바랍니다.”

“방건웅 박사를 만나 보십시오. 그런데 장선생의 실험 실적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 강력한 풍속을 가진 풍력, 풍압을 순간에 진동 추력으로 변환시켰습니다.”

“본래보다 얼마를 증폭하였습니까?”

“30배 가량 됩니다.”

“대단하군요. 제2회 국제 신과학 심포지엄에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기회가 있을겁니다. 실험 중에 얻은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블랙홀의 워홀을 보았습니다. 그 워홀이 통일장이었습니다. 그 통일장이 태풍의 핵(核)으로서 미세 에너지였습니다. 통일장에는 상대성도 대칭성도 불확정성도 의미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네 가지 힘의 상호작용이 하나의 힘으로 있는 곳입니다.”

“또 무엇을 봤습니까?”

“그곳은, 새로 시작되는 곳으로 갖고 있던 것이 분해되고 다음의 결합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질서에서 혼란까지 간 것이 다시 질서로 들어서는 출발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하군요. 에너지 증폭 문제인데 제로 포인트(Zero point)에서 시작됩니까?”

“그렇습니다. 혼란 없이 질서의 에너지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의 정체가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이라고 봅니까?”

첫째 중력자(플라즈마),

둘째 전자(뉴트리노),

셋째 기자(氣子) (솔리톤),

이 셋이 하나로 되어 에너지로 났습니다.

“그럼 융합 에너지의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융합 에너지입니다. 쓰여진 에너지가 아니라 쓰여질 에너지였습니다.”

“대단하군요.”

“선생님 또 40분이 지났습니다. 전화 요금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끊겠습니다.”

며칠 후 또 40분 이상의 국제 전화를 했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었다. 취산 선생님께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걱정하고 계셨다.

“그런데 후원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선생도 선배도 후배도 없습니다.”

“.....”

오랜 시간 전화료만 지불됐다.

취산 선생이 하신 말씀 중에 ‘서울에 가면 박사 세 사람 아니 네사람으로 장선생 연구를 힘있게 합시다.’ 하는 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어떻게 전화로 단번에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는지 놀랍기도 하고 기뻐다. 놀랄 일이 또 있다. 이번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일본에서 블랙홀 물리학의 권위자 中河英明 박사를 만났다. 그런데 취산 선생님처럼 그와도 단번에 연구 내용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 네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새로워 지금 다시 시작되는 자세였다. 이번에는 中河 박사가 서울에 오겠다고 했다. 中河박사는 나의 이론과 원리로 일본 원자력 발전소를 바꾸겠다고 했다고 동행자가 전해주었다. 中河박사도 나의 연구 후원에 대해 궁금해 했다. 같은 답을 했다. “.....” 아무 소리 없이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취산 선생과 같았다.

나는 늘 홀로 되뇌인다.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때 보내셨던 Fax(뒷장 참조)를 읽고 또 읽겠습니다. 어느날 ‘지금여기’에서 다시 뵈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의 연구적 촉매입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뵈고 싶을 때 싸이클을 맞추고 만나렵니다. 선생님을 뵈고 싶을 때 언제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할 일이다. 나는 오늘도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오가며 언제든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그를 만나고 모르는 것을 묻곤 한다.

Fax to : Vector 유추물리 연구소 장영진 선생

From : 박 취산

장선생, 진작 서로 알게 되지 못한 것도 탄은 하나의 구도이겠습니다. 제가 선생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당장 드리지는 못하나, 지구문명 전환기 막바지에서 장선생의 연구는 아마도 하나의 필연적 과정일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좌절하지 마시고 하셔야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십시오. 장선생이 맡으신 사명이 반드시 완수될 것입니다.

한가지, '무심' 속에 '천심'이니, 목전의 일들로 선생의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선생과 나-는 이제 그런 나이이기도 하지요.

고요한 마음으로 선생의 위대한 노력을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10/24/98 YAP
—취산